

## 卷頭辭

서울大學校  
附屬圖書館長 金桂淑

도리어 보건대 이 館報가 創刊된지도 벌써 3年째 접어 들었습니다.

元來 計劃으로는 이 館報는 季報로서 1年에 4回 發行하기로 하였었으나豫算關係로 그 實現이 困難하여 第1卷 및 第2卷은 不得已 單卷으로 發行하였었습니다. 第3卷부터는 두 號를 發行할 豫定이었으나, 역시 이번에도 1號만을 發刊하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

그동안 本館에서는 通常業務外에 몇 가지 特殊한 事業을 計劃하고 이를推進하여 왔습니다.

첫째 綜合目錄事業을 들 수 있습니다. 本館에서는 本館所藏圖書 60餘萬冊과 各單科大學所藏圖書 18萬冊에 대한 総合目錄을 作成하기 시작하였는 바 來年까지에는 既整理圖書만은 綜合目錄作成이 完成될 것이며, 다음 段階로는 다른 大學校圖書館 또는 學術專門圖書館과의 部分的인 綜合目錄作成事業에着手할 豫定입니다.

둘째 奎章閣圖書目錄의 出版입니다. 本館 創設以來 오랫동안의 宿題이었던奎章閣圖書의 整理가 實現되어 現在까지 集部 1冊, 史部 3冊, 經子部 및 補遺 1冊 都合 5冊이 프린튼版으로 이미 出版完了되었으며, 나머지 書名索引 1冊이 不遠間 出版되게 되었습니다. 이것으로써 奎章閣圖書의 韓國本目錄만이라도 完成되어 宿願의 半은 達成된 셈입니다.

셋째 文獻複寫事業입니다. 本館에 收藏中인 奎章閣圖書 및 其他 貴重圖書 등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複寫하여 國内外에 널리 普及시켜 民族文化를 宣揚하고 아울러 學術研鑽資料로 提供하기 위하여 實費로 文獻複寫奉仕業務를始作하여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이와 아울러 本館收藏與否를 莫論하고 貴重한 文獻 및 資料를 「影印本」으로 發行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本校開校 20周年記念事業의 一環으로서 明年 10月까지에는 될

수 있으면 影印本 20 輯을 發行할 計劃을 세우고 있읍니다.

이와 같이 藏書의 綜合目錄編成, 資料의 複寫 및 資料交換등의 事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함으로써 學問의 研究는 勿論이요 나아가서는 民族文化發展에 조금이라도 寄與할 것을 確信하여 마지 않습니다.

本館報 第3卷에서는 古書整理에 參考가될 「韓國古活字本에 對한 研究」라는 論稿와 위와 같은 여러 事業의 内容과 그 計劃 및 推進狀況을 報道하는 뜻에서 一般的인 記事 보다 特別事業에 關한 記事を 重點的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음 號로 미루기로 하였읍니다.

本館의 無限한 發展과 더부러 本館의 끊임 없는 成長의 標識으로서 本館報의 꾸준한 發展을 빌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.